

고구려 복식의 미학적 연구

금 기 숙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섬유미술학과 부교수

An Aesthetic Study on the Kokuryo Costume

Key-Sook Geu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Textile Art, College of Fine Art, HongIk University
(2002. 3. 4 투고)

ABSTRACT

The study of traditional costume is significant in terms of figuring out of the reality of its originality and enrich the costume culture of tod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and to contemplate the aesthetic values of the Kokuryo costume.

Kokuryo costume were characterized with the simpleness in its clothing constructions. The spaces found on the dresses were emphasized giving a geometric characteristics and abstract images. Many different colors were used for tops, bottoms, and border elements showing value contrast in each parts of dress. Patterns were simplified in a dot or stripe shapes impling a certain symbols. Dot patterns were varied in its shapes. In general, the decorative elements were simple and eliminated.

Through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these aesthetic characteristics, aesthetic values were found. The aesthetics of nature were favoured and tradition were respected. Religious mind were favoured and progressive spirit were endowed by the Kokuryo people. They have pursued the diversities and many changes in visual forms of dresses which were the manifestations of their esprit.

Key Words : Kokuryo costume(고구려 복식), Aesthetic characteristic(미적특징),
Aesthetic value(미적가치)

* 본 논문은 2001년도 홍익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I. 서론

전통 복식미의 현대적 활용과 한국적 디자인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많은 연구나 역사를 반영한 패션디자인 작품들은 조선시대의 복식이나 그 미적 특징의 현대적 활용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전통미의 모색이 조선시대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인상을 줄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전통미의 다양성을 간과하는 위험도 내포되어 있다. 한편, 한국 전통복식은 한국 역사에 나타났던 여러 시대의 복식을 포함하므로, 한국 복식의 조형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복식사에 출현했던 모든 시대의 복식에 대한 미적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복식의 조형미의 내용을 풍부히 하기 위해 상고시대 복식 중 고구려 복식을 대상으로 미적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고구려 시대의 복식에 대한 기록이나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벽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은 부장자의 신분을 나타낸 물론, 그 시대 사회와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신분이나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복식은 착용자의 지위나 태도 등을 암시하고 있다.

고구려 복식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 주로 벽화를 중심으로 복식의 종류나 양식적 특징을 밝히는데 집중되어 왔다. 전통 복식의 현대화는 양식적 특징뿐만 아니라 그 복식의 미적 특징이나 미적 가치를 확인하여 활용할 때 더 효율적이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고구려 복식의 경우에는 고구려 복식의 아름다움에 대해 집중적이고도 심도 있는 연구에는 거의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고구려 복식의 미학적 고찰을 통해 복식의 미적 특징과 미적 가치를 유추하여 고구려 복식의 조형미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연구의 결과는 전통복식의 아름다움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고구려 복식의 조형미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벽

화에 나타난 인물들이 입고 있는 복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구체적인 품목에는 冠帽, 襦, 袴, 裙, 袍 등이 있다. 문양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瓦當과 벽화에 시문된 문양들도 참조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용어 정의

복식은 의복과 장신구 등 신체에 착용되는 모든 조형물을 의미하며, 본 연구는 고구려 시대의 복식을 고구려 복식이라는 용어로 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복식은 형태, 소재, 색채, 문양, 장신구 등의 조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복식조형이므로 고구려 복식을 분석하여 그 복식의 조형적 특징인 미적 특징과 조형미의 내용인 미적 가치를 유추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고구려는 한반도의 북쪽에 위치하면서 한국인의 기상을 드높였던 국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고구려 시대 복식의 특징을 파악해 보는 것은 그 시대의 복식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그 시대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와 방법이 된다.

전통복식을 연구하는 목적은 각 시대의 복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당시대인들의 정서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당시대의 미학적 관점을 현대에 활용하여 온고지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구려 복식의 아름다움을 파악하기 위해 복식의 조형적 특징을 미적 특징으로 분석하고, 그 안에 내재된 비가시적인 조형 의지는 미적가치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미적 특징

아름다움은 시간과 공간, 문화 나아가 감식자의 취향이나 태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미적 평가나 그

결과에 대해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으로 고찰하고 그 결과를 통합하여 추론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복식에서 가시적인 아름다움은 조형 요소인 형과 형태, 색채, 소재, 문양, 디테일 및 장신구 등에서 발생되며, 복식의 형을 이루며 복식의 특징으로 지각되는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에 의하여 부각되는 특징들은 복식의 조형성이 된다. 어떤 복식이라도 이 요소들에 의하여 관찰되고 지각되며 이해되는 것이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나아가 조형적으로 확인되는 요소들이므로 복식의 미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구려 복식이 보이는 독특한 유형이나, 형태, 스타일, 실루엣, 선 등은 복식을 지각하는 우선적인 요소가 된다. 색채 문제에서는 사용된 색채, 색채 대비의 문제가 등장한다. 색채대비에서는 몇 가지의 색채가 대비되어 사용되었는지도 중요한 관찰 대상이 되는 한편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기능과 의미를 고찰하여 복식 색채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복식의 미적 특징은 이외에도 소재와 문양 등 가시적인 요소에 대한 고찰도 포함된다. 이 가시적인 요소들은 디자인 요소가 되며, 형을 이루는 조형적인 특징은 복식의 조형성이라 할 수 있다.

3. 미적 가치

미적 특징이 가시적인 아름다움에서 찾을 수 있다면, 이 미적 특징을 창출해낸 내재적인 힘은 미적 의지나 동기 또는 미적 가치라 할 수 있다. 미적 가치는 미적 특징을 이루는 가치판단으로 복식미를 이루는 주요한 조형의지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고구려 복식의 연구에서도 복식의 미적 특징은 조형요소로, 복식의 미적 가치는 조형의지로 표현하여, 이 두 개념이 모두 포함된 복식미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적 가치는 미에 대한 가치관, 미에 대한 마음의 상태, 미에 대한 사상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미에 대한 가치관은 미적 태도로

나타나고, 이 미적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는 자세, 입장, 취향을 의미하므로 정적인 의미의 미의식에 가깝고, 조형 의지라고 할 때는 미적 대상에 대한 감식, 표현해 보고 싶은 의지와 욕구를 의미하므로 적극적이고 동태적인 미의식으로 이해된다.

고구려 복식의 미적 고찰도 미적 특징에 대한 연구와 함께 미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미적 가치에 대한 고찰은 복식미에 대한 가치판단을 탐구하게 하므로 고구려 복식미의 연구를 심도 있게 할 것이다.

Ⅲ. 고구려 복식의 미적 특징

1. 형태·면·선

복식의 형태는 그 유형이나 양식을 나타내므로 해당 복식의 특징을 파악하는 가장 우선적인 고찰 대상이다. 형태적 특징은 착용자의 외모에 보이는 윤곽선은 물론 복식의 세부에 활용된 면, 형, 선, 점 등에서 고찰된다. 특히 조형적 시각에서 관찰되는 형이나 형태는 복식의 제작자, 착용자, 관찰자 등이 조형 의지에 따라 제작하고 착용하고 감식하는 복식의 조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 형태

고구려 복식은 북방계 카프탄(Caftan) 형식으로 구분되며, 그 기본형은 모자(冠帽), 저고리(襦), 바지(袴), 치마(裙), 두루마기(袍), 허리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고리와 바지는 인체의 형태가 드러나는 정도의 크기이며, 소매는 직선형의 착수로 북방계의 특징을 보인다. 특히 수렴도에 보이는 의복도 격렬한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여유가 확보되어 있어 매우 기능적으로 보인다.

上衣의 깃은 직령, 넓은 좌임, 소매는 착수가 통레이며, 깃, 도련, 소매 끝을 따라 길과 다른 色과 紋樣이 있는 옷감의 선장식이 둘러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여밈의 경우는 고구려 初期에 左衽, 後期

에는 右衽이 많이 등장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상의의 허리에는 여밈을 고정시키기 위해 띠를 매고 있는데, 의복과 다른 색을 사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여성들은 넓이가 다양한 주름치마를 입었다. 장신구의 사용은 비교적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귀걸이나 팔찌 등의 경우도 신라나 백제에 비해 영락장식이 절제되어 있어 떨리거나 흔들리는 부분이 적은 것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간결해 보이며 민첩해 보이는 시각효과를 창출한다.

등장 인물들이 다양한 모양의 의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착용자의 사회적 신분, 계급이나 역할에 따라 형태, 문양, 색채, 장식 등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높은 신분은 비교적 풍성하고 커다란 모양의 의복이나 소매를, 일반인들은 인체에 맞는 의복에 좁은 소매를 입고 있는 것 등에서 개인의 차이(上鑣下窄)를 보이고 있다.

치마가 여성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할 때, 고구려 衣服은 시각적으로 남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¹⁾. 예술적인 표현을 중시하는 무용복도 팔 동작의 효과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 긴 소매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삼(汗衫)을 부착하거나 소매의 길이를 길게 한 소매는 그 길이나 폭에서 당시대의 중국 무용복보다 훨씬 간결해 보이는 것이 주목된다. 이러한 장수의는 각 문화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²⁾<그림 1> 무용하는 인물들이 입고있는 장수의<그림 2>는 인체의 곡선이 드러나지 않은 채 직선적인 인상의 단순한 형태를 특징으로 하며, 인체에 적당한 크기로 제작되어 있어서 활동적이며 실용적으로 보인다. 긴 소매

선이 움직임이나 흔들림이 시선을 끄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바지의 밑단은 안으로 오므려 정리되어 있어서 기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2) 면

고구려 의상은 선(線)보다는 면(面)이 부각되어 보인다. 직선적인 재단은 절개선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의복은 비교적 넓은 선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여러개의 면이 조합된 것으로 지각된다. 이 면들은 공간으로 또는 여백으로 인식되며 장식공간으로도 작용한다.

상의(上衣)와 하의(下衣)는 다른 소재들의 조합을 보이며, 깃이나 도련, 끝동 등에 사용된 異色の 선장식도 면의 이미지가 강하다. 넓은 선장식(襟裝飾)의 경우는 선이라기 보다는 면으로 지각되기 쉽고, 넓은 소매의 끝동도 선이 아닌 면으로 관찰된다. 그러므로 고구려 의복은 면과 면의 대비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각되는 특징을 보인다. 면과 면의 대비가 강조될 때에는 각 면에 사용된 색채와 소재의 대비가 주목되어 기하학적인 구성을 보이기 쉽다. 복식표면의 기하학적인 구성은 복식을 관찰할 때 전체보다 부분이 먼저 지각되는 특징이 있으며, 착용자의 인체 보다는 복식을 더 주목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기하학적인 이미지의 복식은 착용자나 착용자의 인체보다는 착용자의 역할이나 사회적 신분 등이 더 부각되어 보이는 경우가 많다.<그림 2>

따라서 면이 강조된 의복은 기하학적인 인상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고구려 복식은 보이는 대로 단순한 형태의 의복이 특징이라고 단언하기보다는 기하학적인 구성을 통하여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그림 1> 수산리 벽화 (현실 서벽)



<그림 2> 무용총가무도(현실 동쪽벽)³⁾

모색한 것으로 이해된다. 면으로 지각되는 끝동이나 넓은 선장식은 대범해 보이며 활달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기운생동하는 힘을 느끼게 한다. <그림 3>



<그림 3> 수산리 벽화고분 교예도(현실 서벽)

이러한 의복의 面들은 장식공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착용자의 실루엣보다는 소재를 통하여 심미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인물들의 의복에 표현된 점이나 문양들은 소재의 표면효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의상디자인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소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부분적인 장식을 자제하고, 공간을 나누는 재단선도 자제하여 소재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사례가 많다. <그림 4>



<그림 4> 쌍영총 귀부인들(주실 북벽)

3) 선

고구려 복식은 직선(直線)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직선적인 실루엣과 함께 의

복과 명도 차이가 큰 선장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고구려 복식이 보이는 맛맛한 직선의 윤곽선이나 직선으로 봉제된 구성선은 의복의 가장자리에 두른 이색의 선 장식으로 직선적인 이미지가 강조된다.

襖은 저고리의 도련, 깃과 섶, 소매 끝에 부착되어 있으며 치마의 도련에 있는 경우도 있다. 무용총이나 수산리 고분 벽화에 나타나는 선 장식은 섬세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넓고 굵어서 명쾌하고 대범해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넓은 선은 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웅장하고 강한 시각 효과를 보인다. 섶과 도련의 선 장식은 부선(副線)에 의하여 중복되고 강조된다. 부선은 선장식의 옆에 같은 색으로 나타나거나, 주선과 다른 색을 사용하여 선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

선 장식은 원래 고대복식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구려 복식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우이다. 그 기원은 가장자리의 보강,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것, 심미적인 용도 등으로 알려져 있다. 선을 모피로 두른 흔적이 있는 것은 맹수의 털이 악귀를 막아줄 것이라는 원시신앙 때문으로 추정되며, 추운 겨울에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⁴⁾ 고구려의 선장식도 이러한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의복과 선 장식에 사용된 색채가 색상이나 명도에서 뚜렷한 대비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주로 복식의 심미적(審美的) 의도가 많이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3>

색동치마와 주름 치마 등도 직선적인 선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이다. 무용총 인물의 윤곽선도 직선적인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당시대인들이 선호한 표현기법으로 이해된다. 직선으로 추상적인 이미지를 보이는 사례는 당시대의 와당(瓦當)이나 벽화 등 다른 조형물에서도 발견된다. 초기 고구려의 와당에는 연봉(연꽃 봉우리)이나 행인형(은행 열매) 문양의 주변에 직선을 다양하게 배치하면서 기하학적인 문양을 구성한 것이 많다. 여기에서 직선은 여러 가지 모티프들과 조합되어 다양한 문양을 구성하고 있다. 즉, 문양에 표현된 선이나 문양의 모티프들이 매우 간단하여 단순히 보이

지만, 문양 구성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획일화를 지양하는 당시대인들의 조형의지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시각적으로 매우 단순해 보이는 문양구성의 내면에는 다양성을 모색하고 시도하려 한 실험정신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벽화에 보이는 선도 시작과 끝 부분의 굵기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움직임 표현하는 듯하여, 역동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운문, 연화문, 당초문의 표현에도 강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곡선의 경우도 유장하고 섬세한 선이라기 보다는, 굵다가 가늘어지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어서 생동감이 있어 보인다. 전체 장식공간은 직선과 곡선이 자유분방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기운생동하는 듯한 역동적인 이미지가 감지된다.

2. 색채

벽화의 인물들이 착용하고 있는 의복의 색채는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 인물들이 착용한 저고리, 치마, 바지 포, 선과 문양 등에 나타난 색에는 백색, 삼베색, 황색, 갈색, 주황색, 주홍색, 빨강색, 자주색, 분홍색, 청색, 연청색, 청록색, 녹색, 연청록색, 검정색 등이 있다.⁵⁾ 이들 중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흰색이다. 이것은 고구려인들의 순수한 색채의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고구려인들이 백색을 숭상했던 부여의 후에였던 점을 상고해 볼 때 백색을 애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물들의 복장에 보이는 특징은 대부분의 경우 상의와 하의에 서로 다른 색채를 사용한 점이다. 백색과 흑색, 갈색과 베색, 백색과 베색, 황색과 갈색, 백색과 주황색, 녹색, 갈색과 주황색 등의 색채 대비를 많이 보인다. 색채대비는 색상대비보다는 강한 명도의 대비가 시각적으로 더 애용되고 있다. 특히 의복에서 선 장식은 대부분 의복보다 훨씬 짙은 색을 사용하고 있어서 의복과 강한 명도대비를 보이며 그 모양이 부각되고 있다. 벽화에 나타난 색채들이 그 당시의 색채를 대변하는 모든 색채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 색채들은 당시에 사용된 한정적인 색료와 시

간의 흐름에 의해 변색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고구려 복식에 사용한 색채는 벽화에 보이는 색채보다도 훨씬 다양한 색들이 자유분방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벽화의 색동치마, 古書에 보이는 ‘王은 五采服을 입었고... 대신은 靑羅 조우관, 일반 관인은 絳羅 조우관...’, ‘衣服冠履에 모두 金彩를 장식하였다.’는 기록⁶⁾, 염색기술, 당시대 중국의 染織物을 상고할 때 고구려 복식에는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상류계층의 의복이나, 제례복, 의례복 등의 특수복은 화려한 색채 대비를 사용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평양시대의 와당들의 색채도 대부분 적갈색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그 건물에 살던 사람의 의복에서도 강하고 화려한 이미지가 애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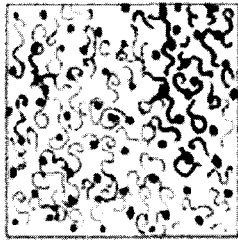
그럼에도 벽화에 보이는 특징은 ‘우아한 색감’을 들 수 있다. 集安 오회분 4호묘의 달의 신과 해의 신은 주황색을 기조로 한 은은한 색조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고구려인들이 사용한 색채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⁷⁾ 당시대의 색채들이 우아하다고 하는 것은 벽화에 보이는 색채들이 중간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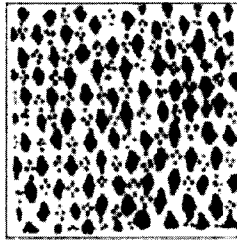
고구려 의복은 表面이 부각되어 보이는 특징을 보인다. 복식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은 면으로 공간과 여백으로 지각되며, 장식 공간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 의복에 사용된 문양들은 단순하게 표현된 것이 특징인데, 그 종류는 점문양, 줄문양, 당초문으로 보이는 넝쿨 문양 등이 있다. 특히 점문양은 전체 문양표현 중 63%가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⁸⁾ 점문양들도 자세히 보면 그 모양은 서로 다르며, 크기나 구성도 다른 것이 확인된다. 이것은 단순한 점문양(dot pattern)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문양을 간략하게 표현한 결과로 추정된다.

문양의 구성은 대부분 사방연속문양의 기하학적

표현방식이 많이 보인다. 이것은 당시대에 많이 사용된 經錦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작은 문양들이 기하학적 구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금직의 발달을 고려할 때 地紋이나 지문의 다양한 재질감도 복식의 장식 요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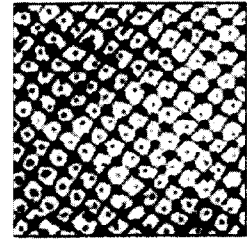
<그림 5> 안악3호분
부인상(전실서촉실남벽)



<그림 6> 장천1호분
(전실의 현실쪽 벽면)



<그림 7> 삼실총 인물도의
여인(제1실 남쪽벽)



<그림 8> 무용총
(주인과 손님)

는 연화문, 유운문, 당초문 등과 같은 다양한 장식 문양이 많이 보인다. 연화문은 정면, 측면, 봉우리형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운문, 당초문 등이 화려하게 나타나 있다. 문양에 사용된 선도 굵고 가는 정도가 리드미컬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작가의 표현 의지나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전

문양은 상의와 하의, 선 장식 등 가능한 장식 공간에 모두 등장하고 있다. 상하에 다른 문양을 사용한 경우도 상당수 찾아 볼 수 있어서 여러 문양이 어울려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다양한 문양과 상의와 하의에 다른 색을 사용한 조합은 당시대 의복의 화려한 시각적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게 한다.

[王會圖]의 고구려 사신이 착용한 長襦에는 하트모양의 여의(如意)형 문양의 주위에 연주문이 둘러진 모티프가 전체 의복의 표면에 시문되어 있다. 문양의 중심 부분은 짙은 초록색으로 테두리와 외곽의 연주문을 흰색으로 채색하였다.⁹⁾ 이와 유사한 문양의 구성은 고구려와 발해의 와당에도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고구려 시대에 애용되었던 장식문양의 하나로 추정된다. 또한 [翰苑]卷30 蕃夷部 高句麗條에는 “紫地纈紋”의 기록으로 보아 고구려 染紋織物이 상당히 발달했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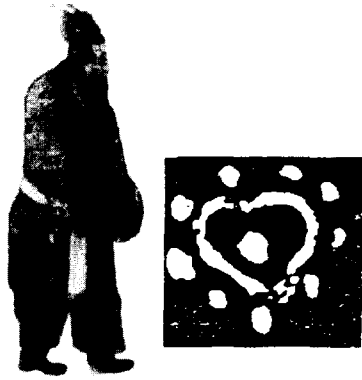
당시대의 문양은 벽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당시대에 유행된 문양이나 미적 특징은 다른 조형물에서도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생활공예품의 장식문양들을 고찰하는 것은 당시대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벽화에

체 문양의 구도는 바람에 휘날리는 듯한 방향성이 표현되어 기운생동하는 흐름이 시각적으로 감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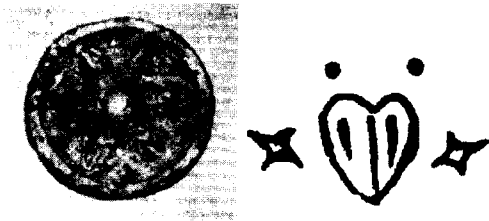
고구려 시대의 瓦當에도 연화, 행인형, 용면(龍面)¹⁰⁾, 직선과 곡선으로 구성된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문양이 많이 사용되었다. 행인형이나 연봉도 형태만 약간 변한 것이 아니라, 뾰족한 모양에 줄 문양을 한 줄 혹은 두 줄을 두르거나, 행인형 사이에 칸을 여러 개 배치한 후 인동문이나 점을 배치하여 다양한 문양을 구성해 보였다. 직선과 곡선으로 조합된 여러 문양들의 표현양식은 매우 추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제나 고신라는 6엽이나 8엽 등 연꽃잎의 숫자나 특정한 선의 사용 등으로 어느 정도 양식화되어 있는 것에 비해, 고구려 와당은 행인형과 직선, 곡선, 돌기문양 등 단순한 모티프들의 반복으로 같은 문양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것이 주목된다.

이렇듯 문양의 종류나 배치 등에서 보이는 다양한 기하학적 문양의 출현은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한 조형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것은 당시대인들이 상당한 수준의 디자인 감각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이들 기하학적 문양은 청동기시대에 출현했던 다뉴세문경의 추상성이 고구려 와당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상 전래의 추상성이 예

술로 재현된 사례로 이해된다.



<그림 9> 왕회도 고구려 사신과 모티프



<그림 10> 발해 와당 과 모티프

4. 소재

복식의 소재에 대한 기록에는 여러 조직의 견직물, 마직물, 모직물 등이 신분이나 직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사용되고 있다.¹¹⁾ 또한 벽화의 인물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의 색이나 문양의 다양함으로 보아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출토 유물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다채색 문양이 시문된 금(錦)이 많이 출토된 점으로 보아 소재의 다양함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당시대에는 폭이 좁은 경금(經錦)이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금은 폭이 좁고 문양의 크기도 작은 것으로 보아 벽화의 인물들이 착용한 복식의 문양들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금은 두께가 비교적 두껍고 뽀뽀하여 의복의 윤곽선이 직선적인 분위기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인물들은 양감을 보이는 복장을 착용하고 있고, 밋밋하게 직선적으로 보이는 실루엣을 보인다. 특히 쌍영총 벽

화의 여성복에서는 분명하게 A라인의 실루엣을 이루는 윤곽선이 주목된다.<그림 3>

[왕회도(王會圖)]나 [번객입조도(蕃客入朝圖)] 등에 보이는 인물들의 의복 윤곽선은 보다 유연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금보다 더 유연한 소재들인 라(羅)나 기(綺)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복식에 사용된 소재들은 식물류 외에도 깃털과 같은 자연물, 금, 동과 같은 금속류가 보이나, 백제나 신라보다 금속류가 적게 보이는 것이 시선을 끈다. 더구나 장신구의 형태도 매우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영락장식이 많은 신라나 백제의 장신구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복식의 특징은 활동성이나 기능성을 고려한 것 같이 몸에 밀착된 유형이 대부분이어서 부분적인 장식성을 지양한 것으로 이해된다.

5. 장신구 및 디테일

섬세한 장신구가 많이 출토되고 있는 신라나 백제에 비하여 고구려는 비교적 적은 양의 장신구가 발견되었다. 발견된 고구려 유물들도 매우 단순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벽화에는 다양한 유형의 관모가 보이고, 대(帶)의 착용방법도 여러 가지 착용방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능성 외에 심미성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관정제'라는 용어를 애용했을 만큼 관모는 한국복식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고구려 시대의 관모는 그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지만 절풍에 조우鳥羽나 조미鳥尾를 삽식한 鳥羽冠은 매우 특징적인 관모이다. 새의 깃털로 장식한 조우관은 착용자의 용맹함과 민첩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새와 관련된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즉, 조우관이 무악인(舞樂人)의 관모로도 사용되었음은 고구려인들이 샤머니즘과 연관된 영조신앙(靈鳥信仰)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¹²⁾

새(鳥)는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아시아 기마민족들 간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티프로¹³⁾, 그 시원은 북방유목 민족의 샤머니즘과 연관된 새 숭배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⁴⁾ 그러므로 조우 삽식의 상징적 의미는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태양승

배사상의 표현이며, 둘째는 고대인의 영혼불멸사상을 표현이다. 셋째는 신과 인간의 매개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다. 인간과 영혼의 접촉을 위한 중매자로서 새의 깃이 등장하였고, 샤먼의 의상 특히 神帽 장식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새의 가장 강력한 상징과 초점은 날개이다. 높고 넓은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는 이러한 상징적 표현에 즐겨 활용되어 왔다¹⁵⁾. 그러므로 새 장식은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관모 장식에 활용되었고, 후대에는 수렵사회의 영향으로 용맹을 상징하여 무관의 冠帽 장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화의 그림들은 당시대의 자연관을 감지하게 한다. 각 방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자연의 기운생동에 관심을 두는 것 등은 자연미에 대한 태도의 결과이다. 만주 지역의 평원에 보이는 지평선이 직선으로 나타났고, 그 지평선의 직선적인 아름다움이 의복에 표현된 것으로 유추되기도 한다. 말을 타고 평원을 질주하며 느끼는 역동성, 말의 짙은 색깔이나,馬上에서 느끼는 움직임이 벽화에 그대로 표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복식에 보이는 기운생동의 요체는 생명성이라 할 수 있다. 복식에서 보이는 강한 이미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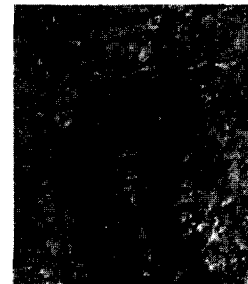
<그림 11> 수산리
시녀도(현실 서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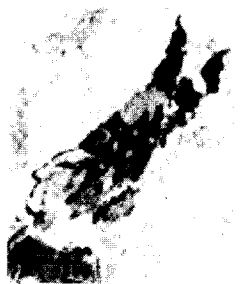
<그림 12> 수산리
인물도(제1실 남벽)



<그림 13> 삼실총
행렬도(제1실 남벽)



<그림 14> 삼실총
행렬도(제1실 남벽)



<그림 15> 개마총
행렬도



<그림 16> 무용총
(현실 서벽)



<그림 17> 감신총



<그림 18> 각저총
인물도(묘실 사각모서리)

IV. 고구려 복식의 미적 가치

1. 자연미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은 많은 장식문양이나 벽

화탈함에 각 인물들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으며, 이들은 자연의 이치와도 상통하는 자연미의 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고구려 시대에는 연중 12차례에 걸쳐 국중대회(國中大會)를 열어 제천행사(祭天行事)를 하고 가

무백희(歌舞百戲)가 열렸었다는 기록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의 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당시대에 즐겼던 무용도 고구려 국민성 자체가 강건하고 용맹스러운 기질이기에 그에 따라 직선적이고 동적인 발랄한 모습으로 발전된 것으로 짐작된다.¹⁶⁾

2. 전통미

전통에 대한 존중과 옛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복식의 미적 특징으로 표현될 때 전통미는 해당 복식의 조형의지로 작용한다. 고구려 복식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백 년에 걸친 벽화의 인물상에서 기본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단하며 단순해 보이는 의복 구성은 양식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의복출현을 저지하는 요인으로 보이기도 한다. 복식구조의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소매의 폭, 길이, 선 장식의 다양한 표현 등을 통해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를 표현하고 있어서, 당시대인들의 지혜로운 조형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양식화된 복식의 구조에서도 복식의 문양 표현, 넓고 강한 선장식, 세부장식 등 시각적인 다양성을 연출한 점은 획일성을 지양하고 자연미를 지향한 미적 태도와 연관된다.

평면적인 재단, 상의와 하의에 나타난 이색 사용의 지속성, 강한 색상대비를 보이는 선장식 등은 고구려 시대 동안에 그 원형을 유지해온 조형적 특징들이다. 부여에서 보인 백의 선호도 대표적인 전통미의 한 부분으로 해석할 만큼 고구려 복식에서 지속적으로 작용되었다.

3. 신앙의 미

고구려에 불교가 전파되기 전부터 있었던 도교나 민속신앙의 영향은 고구려벽화에도 많은 흔적이 보인다. 부여의 영고, 동맹 등의 제천의식에서 사용하였던 장엄한 음악과 무속의 형태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미를 기반으로 하였다고 보이며, 해신이나 달신(月神)의 모습이나 삼족오(三足鳥)의 문양 등에서 도교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사신총에

나타난 사신도는 방위를 나타내며, 음양오행사상의 영향 또한 확인된다.

372년 불교가 소개되면서 불교적인 신앙의 미가 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벽면에 자유분방하게 표현된 연꽃이나 연봉의 도상이나, 극락정토에 산다고 믿는 사람의 머리에 새의 몸을 가진 人頭鳥身의 가릉빈가(迦陵頻伽:kalavinka)문양 또한 불교의 영향으로 해석된다.¹⁷⁾ 여러 가지 추상문양은 신앙의 상징적인 기호로 활용되며 신앙의 미와 연결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4. 진취적 기상의 미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벽화의 인물에서는 진취적인 기상을 볼 수 있다. 이들이 추구한 이상적인 인간상은 자연 속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진취적인 기상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활동성은 직선적인 재단의 복식, 장신구의 절제 등을 요구했을 것이며, 다양한 모습의 수렵도를 자랑스럽게 표현한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수렵인들이 구사하는 파르티안 샷(Parthian shot)은 탁월한 궁술이나 무술에 대한 자부심의 한 표현으로 보이며, 상당한 균형감각을 지닌 단련된 신체조건을 과시하는 것이다. 사냥은 심신을 단련하는 중요한 학습의 하나로 학문을 연마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학습방법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당 시대에 진취적인 기상을 높이 평가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벽화의 표현에서 전체적으로 굵고 분명한 직선적인 선,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듯한 문양의 표현 등에서도 당시대인들의 웅건한 기상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이것은 '무풍적 기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¹⁸⁾ 부분적인 표현에서도 정적인 모습보다는 움직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동적인 표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역동적인 움직임이나 진취적인 기상에 많은 가치를 두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고구려 조형미의 특징은 단순하며 기하학적이다. 형태에서도 면이 먼저 지각되는 특징을 보이며, 단순한 선장식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 표현이 다양하며 현대적으로 보인다. 문양도 간단한 모티프가 여러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점문양의 경우는 다양한 문양이 생략하여 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점이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 있어서 장식 표면이 변화 있어 보이며 다양해 보인다. 이것은 획일화를 지양하는 고구려인들의 조형의지가 시각적으로 표출된 결과로 고정된 관념이나 틀을 깨고자 하는 강한 자유 의지의 표출로 해석된다. 이러한 강한 자유의지는 미래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디자인의 다양한 표현은 획일화된 양식의 모방보다는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적 특징은 자연미, 전통미, 신앙의 미, 진취적 기상의 미 등의 미적 가치 즉 조형의지가 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구려인의 기질과 기상에 대한 이해는 현대 조형 작업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21세기 문화발전의 필수적인 모티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고구려 조형미의 현대적인 활용은 전통을 계승하는 우리의 과제이며, 그 방법론의 하나를 제시하는 의미에서 고구려 조형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고구려 조형미를 이해해야 한다. 복식자체는 단순하고 꾸밈이 적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간결한 최소의 요소로 당시대 복식의 미적 특징을 최대한으로 표현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¹⁹⁾ 즉 단순하며 기하학적인 의복구성에 보이는 추상성이나, 표현의 다양성, 대담하며 기운생동하는 이미지 등은 고구려 조형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때에 파악할 수 있는 고구려의 독특한 조형미인 것이다.

둘째, 다양한 활용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전통미의 활용하는 단계에서 원형을 모방하는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미적 특징이나 미적 가치까지 활

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또한 고구려 복식에 보였던 다양한 실험정신을 이어받아 단순한 형태에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은 현대에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셋째, 국제적인 공감을 형성하는 디자인을 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그 활용방법을 고찰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전통의 현대화작업은 토속성과 현대성 혹은 민족성과 국제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패션 이미지를 차별화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디자인 특성을 고려하여 패션디자인의 소재나 색상, 스타일 등을 각 디자인 작업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²⁰⁾

다양성을 추구하고 획일화를 지양했던 고구려인들의 실험정신은 21세기를 맞는 우리들이 모색하고 있는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작품의 필수적인 조형의지로 우리들이 계승해야 하는 전통의 하나이다. 우리 내면에 고구려적인 기질과 활달한 취향이 잠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자유의지가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을 창출하는 조형의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조형감각과 감식안을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李京子(1983). [韓國服飾史論], 서울: 志社, pp.118-21.
- 2) 윤지원(2000). "漢代와 고구려 長袖衣 무용복 비교", [服飾], 50권 5호, p.42.
- 3) [集安고구려 고분벽화], 조선일보사, 1993, p.119.
- 4) 劉頌玉(1998). [韓國服飾史], 서울: 修學社, pp.46-7.
- 5) 金惠媛(1985). "고분벽화에 묘사된 복식조형의 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p.22.
- 6) 柳喜卿(1986).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61-3.
- 7) 조요한(1994). "한국미의 전통과 계승", [한국의 미, 그 현대적 변용], 서울: 호암미술관, p.150.
- 8) 金惠媛(1985). p.64.
- 9) 이진민, 남윤자, 조우현(2001). "[왕희도]와 [번개입조도]에 묘사된 삼국사신의 복식연구", [복식] Vol.51, No.3, 서울: 한국복식학회, p.165.

- 10) [新羅瓦博](2000), 慶州: 國立慶州博物館, pp.232-7.
- 11) 柳喜卿(1986), pp.119-200.
- 12) 鄭宛眞(1994), "高句麗 冠帽考",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p.96.
- 13) 김병모(1998), [금관의 비밀], 서울: 푸른역사, p.108.
- 14) G.Nioradze, 이홍작(역)(1976), [시베리아 제민족의 원시종교], 서울: 신구문화사, pp.43-56.
- 15) 신경섭(2000), "한국의 鳥羽冠과 중국의 鶴冠 비교연구-鳥羽插飾植의 상징적 의미와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服飾], 50권 4호, pp.90-4.
- 16) 윤지원(2000), p.42.
- 17) [新羅瓦博](2000), p.279.
- 18) 유승욱, 이은영, 황선진(1996), [복식 문화], 서울: 敎文社, p.29.
- 19) 金惠媛(1985), p.74.
- 20) 김찬주, 장인우(1999), "한국 현대패션에서의 한국적 디자인 전개과정 분석과 세계화를 위한 제안", [服飾]48호, 서울: 한국복식학회, p.22